

세계를 뒤흔든 봉준호

▶1면에서 이어집니다

‘기생충’은 지난해 한국영화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이후 같은 해 10월11일 북미에서 개봉해 현지 평단과 언론의 호평 세례를 받았다. 골든글로브 시상식 직전 전미비평가협회 외국어 영화상, LA비평가협회 작품상·감독상 등을 휩쓸기도 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최근 ‘버닝’이나 ‘아가씨’ 같은 영화가 문을 두드린 상황에서 ‘기생충’이 처음 후보에 올라 수상의 열매를 맺었다”며 “한국영화의 저변 확대와 경제적인 효과를 넘어 할리우드가 한국영화와 감독들에 크게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이제 아카데미상만 남았다

골든글로브 시상식 직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은 자본주의에 관한 영화”라며 “미국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심장 같은 나라여서 논쟁적이고 뜨거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이 작품에는 정치적인 메시지나 사회적인 주제도 있지만 그것을 아주 매력적으로, 관객이 친근하게 받아들여도록 연기한 뛰어난 배우들이 있었기에 미국 관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수상의 공을 배우들에게 돌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기생충’의 주연배우 송강호와 조여정, 이정은도 참석했다. 특히 송강호는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북미 개봉에 맞춰 봉준호 감독과 아카데미 시상식을 겨냥한 이른바 ‘오스카 투어’를 함께 해왔다. 영화 호평에 힘입어 시상식에서 송강호를 만난 할리우드 톱스타 브래드 피트는 “‘기생충’의 팬”이자 송강호의 팬을 자처하기도 했다.

이제 관심은 2월10일 열리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으로 향한다. 물론 13일 나오는 아카데미 최종 후보 발표를 지켜봐야 하지만 골든글로브 수상에 따라 아카데미 국제영화상 수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영화계는 ‘기생충’이 감독상이나 각본상 등 주요 부문에도 후보로 이름을 올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수상에 실패하더라도 북미에서 거둔 호평,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을 통해 세계 영화시장에서 이미 한국영화의 위치가 달라진 성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시선이 나온다. 전찬일 평론가는 “2000년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이 칸 국제영화 경쟁 부문에 처음 진출한 이후 20년 동안 세계 무대의 문을 두드리면서 얻은 결실”이라며 “‘기생충’을 통해 한국영화와 감독, 배우들의 국제적인 위상이 예전과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봉준호 감독의 불안·강박, 그에게 안정감을 주는 송강호…‘기생충’ 그렇게 만들어졌다

설국열차 찍으면서 ‘기생충 스토리’ 처음 생각

(2013년)

‘기생충’으로 지난해 5월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고 돌아온 봉준호 감독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약을 권했다”고 털어놓았다. 늘 뭔가 불안과 강박에 시달리는 증세 때문이었다. 심지어 전문의는 “데이터로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까지 말했다.

그런 봉 감독의 몸에는 문신이 숨어 있다. 2009년 연출작 ‘마더’ 개봉을 기념하며 흥행표 촬영감독과 함께 영화에 등장하는 나무와 새의 모양을 본 따 그려 넣었다. 어쩌면 봉 감독은 늘 자신을 괴롭히는 불안심리와 강박을 영화로 버려내고 있는지 모른다. 실제로 그는 “불안을 잊기 위해 영화를 만들고 다시 또 불안에 떠다”고 밝혔다. 2000년 ‘플란다스의 개’를 장편영화 데뷔작 삼아 창작의 길에 들어선 지 19년, 관객은 ‘기생충’으로 마침내 한국영화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수상의 쾌거를 안겨준 그에게 위안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봉준호의 기억

봉 감독은 “(불안 속에서)송강호를 보면 ‘저 형님이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다’는 안정감을 찾는다”고 고백했다. ‘기생충’은 그런 두 사람이 만난 또 다른 무대다.

봉 감독은 2013년 역시 송강호와 함께



“기생충의 팬! 송강호의 팬!”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오른쪽 첫 번째)가 4일(한국시간) 미국 LA에서 열린 미국영화연구소 주최 ‘AFI 어워즈 2020’ 시상식에서 송강호의 손을 붙잡고 “‘기생충’의 팬”이라며 인사하고 있다.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기생충’의 또 다른 주인공 이정은(왼쪽에서 두 번째)과 이선균(왼쪽에서 세 번째)이 웃음을 터트리고 있다. 사진출처 | 배급사 내온 트위터

2017년 9월부터 12월 시나리오 완성 “저 형님이라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다” 동반자 송강호 향한 신뢰에서 출발 모친 떠나보낸 제작사 객신에 대표는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배우 캐스팅

‘설국열차’를 촬영하던 도중 가족을 소재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인 ‘기생충’을 떠올렸다. 머릿속에만 감춰두었던 ‘아이템’을 2017년 9월 중순부터 시나리오로

써나가기 시작했다. 그 한 달 전 배우 김려하 배우 가족과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이야기 구조를 완성했다는 그는 석 달여 작업 끝에 그해 말 제작사인 바른손이앤에이 객신에 대표 그리고 이듬해 1월 초 송강호에게 전했다.

‘기생충’은 모두가 ‘백수’인 기택(송강호)의 가족 가운데 장남 기우(최우식)가 IT기업의 박사장(이선균)의 집으로 고액과의 면접을 보러 가면서 펼쳐지는 두 가족의 이야기다. 이들은 빈부격차와 자본으로 인한 ‘계급사회’의 현실을 명징하게

드러내는 인물들이다.

극중 가난한 가족을 이끈 주인공은 송강호. 봉 감독은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거머쥔 직후 “가장 위대한 배우이자 저의 동반자 송강호의 소감을 듣고 싶다”며 그를 무대 위로 안내하기도 했다. 골든글로브 수상은 바로 이 같은 신뢰에서부터 출발했다.

●객신애의 기억

객 대표는 2015년 4월 봉준호 감독에게서 ‘기생충’에 관한 아이디어를 들었다. 당시 봉 감독은 ‘데칼코마니’라는 제목을 단 A4 15페이지 분량의 트리트먼트를 건넸다. 2017년 12월30일 완성된 시나리오를 받아들였다.

그 한 달여 전 객 대표는 어머니를 떠나보냈다. 투병 중이던 어머니를 바라보며 ‘해피엔드’와 ‘4등’의 연출자인 남편 정지우 감독에게 1년의 시한부 삶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다. 정 감독은 영화라 답했다. 객 대표는 ‘기생충’을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생각으로 어머니의 49제 즈음인 2018년 1월 배우 캐스팅에 돌입했다. 봉 감독으로부터 시나리오를 받아든 송강호를 포함해 최우식, 이선균, 조여정, 박소담, 이정은 그리고 ‘기생충’이 발견한 박명훈과 장재진 등 출연 진을 갖췄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빛낸 기생충의 주역 & 할리우드 스타들



1 배우 송강호, 조여정, 이정은(오른쪽부터)이 6일(한국시간) 미국 LA 베버리힐트호텔에서 열린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레드카펫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2 영화 ‘조커’로 극영화부문 남우주연상을 받은 호아킨 피닉스. 수상 소감에서 할리우드 스타들의 전용 비행기 탑승을 비판하고 “우리 삶에 변화와 화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 영화 ‘주디’로 극영화부문 여우주연상을 받은 르네 젤위거. 4 영화 ‘어디 갔어, 버나뎃’으로 뮤지컬·코미디 영화부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케이트 블란체. 5 브래드 피트(오른쪽)와 리어나도 디캐프리오가 무대에 올라 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 작품상을 받은 주연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를 소개하고 있다.



LA(미국) | AP·뉴스

전초전 승자 기생충, 아카데미상도 보이네

골든글로브 수상 10편중 6편 아카데미서도 외국어영화상

‘기생충’이 한국영화 최초로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을 차지하면서 2월 제92회 아카데미상 수상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실제로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아카데미상의 향방을 가늠하는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만큼 전망은 밝다.

최근 10년간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수상작 10편 가운데 6편이 뒤이어 열린 아카데미에서 외국어영화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영화 ‘로마’를 비롯해 2016년 ‘사울의 아들’, 2014년 ‘더 그레이트 뷰티’, 2013년 ‘아무르’, 2012년 ‘썬과 나테르의 별’, 2011년 ‘인 어 베러 월드’까지 골든글로브 수상이 아카데미상

으로 직결되는 과정을 밟았다.

특히 ‘아무르’는 현재 ‘기생충’이 거치는 경로와 겹친다. 2012년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시작으로 이듬해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에서 연이어 외국어영화상을 차지했다. ‘사울의 아들’ 역시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에 힘입어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2관왕이 됐다. 모두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을 높이는 전례들이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은 예년까지 외국어영화상으로 명명한 상의 이름을 ‘국제영화상’으로 바꾼다. 영화계의 관심은 ‘기생충’의 국제영화상 외에 감독상, 각본상 등 주요 부문의 후보 및 수상 여부로도 쏠린다. 최종 후보는 13일(이하 한국시간) 발표되며 시상식은 2월10일 열린다.

이해리 기자 god1024@donga.com

한국계 아콰피나, 뮤지컬·코미디 여우주연상

더 페어웰로 아시아계 최초 수상 작년 산드라 오 이어 한국계 바통

이번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는 한국계 배우 아콰피나(32)가 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에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특히 지난해 TV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 수상자 산드라 오에 이어 2년 연속 한국계 배우가 영광을 안으면서 눈길을 모았다.

아콰피나는 이번 시상식에서 ‘더 페어웰’(감독 블루 왕)로 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골든글로브 영화 부문에서 아시아계 여배우가 상을 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NN 등 현지 매체들은 “아콰피나가 골든글로브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아콰피나

아콰피나는 2018년 개봉해 ‘아시아 파워’를 일으켰다고 평가 받은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에 출연해 할리우드의 주목을 받았다. 같은 해 산드라 블록, 앤 해서웨이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총출동한 ‘오션스8’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에게 트로피를 안긴 ‘더 페어웰’은 불치병에 걸린 할머니를 위해 가족들이 가짜 결혼식을 여는 내용이다.

아콰피나는 중국계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 이민자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앞서 작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상을 받아 한국계 배우 최초 수상자가 된 산드라 오의 캐나다에서 태어난 이민 2세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